

시온 주보

제2585호
2025년 11월 16일(다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데르스 소른
(Anders Leonard Zorn, 1860-1920)
1886, 수채, 68x102cm
스웨덴 국립미술관, 스웨덴 스톡홀름

입당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말라 3,19-20L

화답송 | 시편 98(97),5-6.7-8.9(◎ 9 참조)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한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2테살 3,7-12

복음환호송 | 루카 21,28 참조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복음 | 루카 21,5-19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늘 천국의 시민처럼



강병완 브루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다음 주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끝으로 구원 역사를 1년 주기로 기념하는 전례 주년이 마무리되고, 대림 시기와 함께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을 암시하는 ‘그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날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르셨는데,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21,10-11)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 당장이라도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듯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의 제1독서인 말라키 예언서는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3,19)라고 전하며, 그날의 공포스러움을 더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재난의 여러 표징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처럼 묘사되는 이 날은 심판의 무서움을 전해주는 무시무시한 날이 아닌 우리가 미사 때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해 함께 기억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되는 복된 희망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2독서인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기쁘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사도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않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고,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날까지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동체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파스카의 신비를 충실하게 기념하도록 초대받았으며, 《가톨릭교회 교리서》 1200항 참조) 주님의 재림을 희망하며 깨어 기다리도록 권고 받았습니니다.(2612항 참조)

2세기 무명 교부의 신앙 해설인 《디오그네투스에게》는 “이 지상에 살면서도 그들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비롯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며 지금은 지상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하느님께서 높여주신 지위에 따라 살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우리 역시 지상의 삶을 전부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희망으로 기다리며 활기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화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밀밭의 수확 장면을 그립니다. 멀리서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화가의 할머니는 이랑 옆에 앉아 술에서 감자를 요리합니다. 고된 얼굴의 노인을 도우려 어린아이나 나뭇가지를 모아옵니다. 평화로운 전원의 풍경과 가난한 농민의 힘겨운 노동이 병행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풍요로운 자연과 끊임없는 일상의 노고를 통해 얻어집니다. 세상 끝 날에 대한 복음은 두렵지만, 성실한 삶과 인내는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성화 해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후안 디에고의 노래



이인평 아우구스티노 시인

인생에선 뜻밖에 감동적인 기쁨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시인으로서 늘 은총의 신비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은 항상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 놀라운 기쁨이 곧바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2017년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찍이 가톨릭에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이야말로 세상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신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라는 성심의 온화하고 따뜻한 관계의 바탕에서, 40년 전에 알게 된 과달루페 성모님께 드리는 사모곡을 800편 넘게 썼습니다.

그중 240편을 2014년에 두 권의 한글판 시집으로 묶어냈고, 2017년엔 서반아어 번역본이 멕시코에서 출간된 계기로 그해 11월에 과달루페외방선교회의 초청을 받아 26일 동안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가 있는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멕시코 사람들의 과달루페 성모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인구 1억 3천만의 멕시코는 93%가 가톨릭 신자이고 과달루페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100%라고 할 정도로 과달루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각별한 나라였습니다.

멕시코의 명문 도시인 과달라하라에서 환 산도발 이니게스 추기경이 집전한 대림 제1주일 특별 행사 때, 7천여 명이 모인 단상에서 저와 제 시집이 소개되는 20여 분 동안 거듭 쏟아진 환호와 박수갈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감동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십자고상 순금 목걸이를 벗어 선뜻 선물로 준 형제를 비롯해 남녀 노소 제 번역본을 사서 사인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한 친교의 환대를 받았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시의 고귀성은 순박하고 순수한 감동으로 드러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심에서 진심으로 가는 시편들’이라고 호평을 해준 원로 시인도 있었습니다. 시의 흐름이 은총의 깊이에 감싸일수록 순수한 감동의 울림도 커진다는 반증이라 여겼습니다. 여러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멕시코인들의 꾸밈없는 환대에 감동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고 사모한 제 시의 울림을 멕시코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공감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달루페 성모께 드리는 찬미의 시를 800편 넘게 써낸 초유의 시인이라는 은총의 결실에 대해 놀라워하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주님과 성모님의 각별한 은총을 받아 시를 쓰던 때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거듭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 위령 성월은 무엇인가요?



〈연옥 문의 그리스도〉 | 프라 안젤리코

우리의 인생은 때로 길 위의 여정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가톨릭교회도 전통적으로 인생을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이라 표현하는데, 그 여정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지상 순례의 끝이며, 지상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현하고 자신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의 끝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013항) 그러나 죽음은 믿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며, 세상에서 갇히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됩니다. 또한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히브 9,27)이기에 죽음 이후 ‘환생’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가톨릭교회 교리서》 1016항)을 고백하는 교회는 특별히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는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삶’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가능한 친교입니다.

한편 위령 성월은 전례력으로 마지막 시기에 자리합니다. 한 해가 12월로 끝나는 것과 달리 교회는 대림 시기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에 전례력으로 1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편, 우리 각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린 ‘희망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몸소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온갖 유혹과 두려움,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다가오더라도 현혹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실패로 보이는 듯한 그 너머에 희망이 있으니, 용기를 내어 당신과 함께 나아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희망의 순례자들’로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은총 가득한 위령 성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위령 성월 기도문을 바치며 위령의 날을 보내고 계시는 구요비 주교님 모습



사목국에서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samok.or.kr 혹은 큐알(QR) 코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것에 대한 경계’ - 히브리인들의 지혜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말을 잘하는 것’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말을 잘하기 위한 수사학 훈련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모임이나 대화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많은 것’은 종종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음을 경계하는 속담들이 여럿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은 아끼면 금이요, 늘리면 독이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현인들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하고 바른 말을 잘하는 데 더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데에는 허물이 있기 마련, 입술을 조심하는 이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잠언 10,19)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야고 1,19)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말 많은 것을 경계하는 히브리인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에 ‘-로 부

터’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어 *ל*을 붙여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다.’라는 동사 *כתב*에다 *ל*을 더한 *כתוב*는 ‘편지, 기록된 글’이라는 뜻이 되고, ‘재판하다.’라는 동사 *דן*에서 ‘재판, 판결’이라는 명사 *דון*가, ‘거주하다.’라는 동사 *שב*에서 ‘거처, 성막’이라는 명사 *שב*가 파생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말하다.’라는 동사 *דבר*에 접두어 *ל*을 붙인 *דבר*는 ‘광야, 황량한 곳’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으니 ‘단어, 말’ 등의 뜻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는 ‘광야’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회개)의 세례를 선포”(마르 1,4)한 것처럼, 광야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고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דבר*가 ‘광야’의 뜻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더해, 이 단어에는 ‘말’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지혜로움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통해 ‘말’을 많이 하는 것에서 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이 불필요한 말만 많이 늘어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황폐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살레시오청소년센터)

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흔히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백일잔치도 하고, 돌잡이 잔치도 열며 기뻐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아이에게 바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너는 꿈이 뭐야?”라고 묻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 기술학교에서, 왕년에는 ‘호랑이 선생님’이라 불리던 분이 정년을 맞으신 지금은 ‘미소 천사 선생님’으로 불리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한 아이를 교장 수사님께 데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사님,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교장 수사님께서서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아이와 면담하신 뒤,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서 한발 물러서셨고 교장 수사님과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그 아이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쯤 지난 어느 날, 한 청년이 학교를 찾아와 선생님들께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선생님께 다

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그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아이임을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와 같은 학생들을 데려와 일을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호랑이 선생님은 가슴을 치며 “내가 한 아이의 미래를 망칠 뻔했구나!”라고 하시며 몰래 화장실에 가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께서는 절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환한 미소와 존댓말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한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셨기에,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 사람이 가진 미래까지도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신앙이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씨앗이 죽고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아닌 사랑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사고뭉치처럼 보일지라도, 그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희망을 신앙이라는 씨앗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정답을 찾으셨나요?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이제 에릭슨 발달 모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여덟 번째 단계(65세 이상)의 과업은 '통합성 대 절망'입니다. 노년기인 이 시기에 우리는 신체적인 노쇠를 경험하고, 직업에서 은퇴하거나 친한 친구 또는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 삶이 가치 있었는지, 과연 잘 살아온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죠.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왔다고 느끼게 되면 점점 더 자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며, 죽음 앞에서도 평온해집니다. 반면, 자기 삶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면 불만과 절망에 빠지며, 우울감과 무력감에 더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굳이 에릭슨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모르지 않지만,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과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시기에 자아 통합을 이루려면, 성공적인 삶이 전제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재산? 사회적 지위? 자녀 양육?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을 가늠하는 기준일까요? 반대로, 실패한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무엇이 정답이라고 딱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공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도 되짚어 보아야겠지만, 어떠한 삶을 성공 혹은 실패한 삶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테니까요.

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온 삶을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돌아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서 온전히 자유롭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죠. 남의 시선이나 기준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기준 위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속 휘둘릴 따름입니다.

둘째는, 지난 삶을 가늠하는 나의 기준을 하느님의 시선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앞서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을 여쭙었지만, 더 나아가 하느님의 기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고, 실패한 삶일까요?

삶에는 아픔도, 후회도, 실수도,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신 뜻대로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함, 죄 그 자체는 아니지 않을까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모든 삶이 귀하고 소중한데, 나만 혼자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시간을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바라는 삶의 '통합'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욥 1,21)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월 16일)은 제9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
 니다.

알림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7년 11월 19일 손성재 야고보 신부(50세)
- 2016년 11월 20일 김대균 파트리치오 신부(77세)
- 2016년 11월 21일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75세)
- 2019년 11월 17일 오기오 요한크리스토토모 신부(68세)
- 2019년 11월 18일 박성구 요셉 신부(70세)
- 2024년 11월 20일 이성국 바오로 신부(62세)

위령성일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교구청 알림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2025년 정기 세미나 개최
 주제: 교회는 청년의 희망인가? -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요한 6:68) / 문의: 02)460-7641
 때, 곳: 11월 18일(화) 오후 2시~5시, 서울대교구청
 본관 5층 501호실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존중으로 다가가는 우리 아이 성교육
 강사: 서혜린(승의여자대학교)
 때, 곳: 12월 12일(금) 9시50분~13시, 교구청본관
 501호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11월 17일(월) 10시~12월 4일(목)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주화: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천주교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등록 신청 안내

정규등록 분야: 건축, 리모델링
 등록신청 기간: 11월 24일~12월 12일까지
 자격 및 서류제출, 심사, 등록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https://aos.catholic.or.kr>) 홈페
 이지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http://www.catholic.or.kr>) 홈페이지 하단 '교
 구'란의 '교구정규등록 건설업체' 참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 3일(월)~21일(금) / 3개월 수업(9월~11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겨울 학기	설기전문 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르코악기 · 국악
	양상발	그레고리오성가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 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1489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 1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복분당': 평양교구 숙천 본당
 문의: 02)727-2420

12월 임신부와 태아 축복미사

때, 곳: 12월 13일(토) 오후 4시, 명동대성당 내 영
 성센터 경당(1F, B-103호) / 준비물: 미사준비 일체
 문의(신청): 02)727-2351 / 12월 9일(화)까지 생명위
 원회 홈페이지 구글폼 신청

2026년 서울평단협 봉사자 모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
 서 봉사자를 찾습니다
 대상: 평신도 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한 분
 서류: 봉사지원서 양식(서울평단협 홈페이지에서 다
 운로드) / 1차 마감: 12월 10일(수)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 자세한 내
 용 홈페이지(www.clas.or.kr - 공지사항) 참조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
 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5년 대림특강

때, 곳: 12월 1일~15일 매주(월) 오후 7시~8시, 명
 동대성당 대성전(3주간) / 문의: 02)774-1784

12월 1일(월)	사목교서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12월 8일(월)	성경 속 인물들의 영적 친교와 소통(통합의 영성)	김영선 수녀 (광주 가톨릭대 교수)
12월 15일(월)	경청과 공감의 기술	정혜신 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당신이 옳다 외 다수 저자-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6년 1월 12일~23일(11박 12일) / 지도: 김성민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
 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옥순 수녀 개인전: 1전시실
 유임봉 개인전: 2전시실
 신성태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 14일(금)~23일(주일)

2027 서울 WYD 행사 안내

1) WYD 희망의 연탄배달봉사 / 문의: 02)2230-2022
 때, 곳: 11월 22일(토) 9시~13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2)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곳: 12월 20일(토) 14시~19시30분, 청년문화공
 간 JU 동교동 / 문의: 02)2230-2023
 위 두 행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oul.org) 참여하기 참조 / 2027 서울 WYD 조직위

환경사목위원회

1) 제8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때: 11월 20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78, 2283

2) 제58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기후경제학: 기후를 위한 경제학
 때: 11월 26일(수) 19시~21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사: 김병권 소장(녹색생태연구소) / 신청방법: 홈페
 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 접수(02-727-2278, 2283)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9695-1366
 때, 곳: 11월 27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2026년 '간 김에 순례' 프로그램

유럽 수도원 및 성지 순례(프랑스·독일·이탈리아)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10-5577-3605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 문의: 02)3276-7794

때, 곳: 12월 26일(금)~2026년 1월 4일(주일)·1월 8일(목)~17일(토)·1월 23일(금)~2월 1일(주일), 예수마음 배움터 / 주최: 예수회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

꽃동네젊은이성령기도회 25주년 기념 감사기도회

대상: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은 모든 분들 / 회비 없음
 때, 곳: 12월 6일(토) 13시~18시,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강당 / 문의: 010-5490-5345

위령 성월 피정

강사: 윤창호 신부(강의·미사·안수), 한영임 회장
 때: 11월 26일(수) 10시~17시 / 점심 무료제공
 곳: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중동역 5분 거리) /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성령 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때: 12월 13일(토)~14일(주일) 1박2일
 곳: 아론의 집(의왕시) / 피정지도: 김성대 신부
 회비: 12만원 / 문의(접수): 010-6366-4022
 주최: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수원교구 찬양사도협)

순교성지 새남터 대림 일일 피정

강사: 이영준 신부(복자수도회), 김재덕 신부(대전교구)
 때, 곳: 12월 6일(토) 10시~15시(순례 미사), 새남터 성당 2층 대성전 / 문의: 070-8672-0327, 02)716-1791
 12월 4일(목)까지 사전 접수 / 회비: 1만원(중식 제공)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월 둘째주(금~주일) 2박3일 12월 12일~14일·2026년 1월 9일~11일·2월 20일~22일
 경북 청도 기차역에서 무료 픽업 신청 가능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토마스 머튼 영성배우기 피정(입문반)

내용: 박재찬 신부의 머튼영성 강의(총12회)
 때, 곳: 2026년 매월 셋째주(토) 10시~16시, 성 베네딕도회 서울 피정의 집(중구 장충동) / 문의: 카카오톡(ID: ThomasMerton 친구 추가), 010-4829-6257 (문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 19일(금)~22일(월)·2026년 1월 16일(금)~19일(월)·2월 20일(금)~23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호소비 포함)
 분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곳: 매주(금) 19시~21시50분,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부르짖는 기도회 말씀 속에 뜨거운 찬양

2026년 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내용: 로마, 아시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때: 82차 5월 26일(화)~6월 6일(토) / 회비: 545만원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위령 성월 대피정

강의, 기도회, 연도, 율동, 찬양, 고해성사, 십자가길을 따르는 삶 / 문의: 010-2637-3280, 010-5259-8234
 때: 11월 23일(주일) 12시20분~17시(미사 16시)
 교통: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500·504·651) 천주교성령봉사회 하차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 한라산 포함 2026년 1월 10일~12일·1월 16일~18일·1월 22일~24일·1월 26일~28일·2월 1일~3일·2월 7일~9일·2월 21일~23일,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3일(한라산·해돋이·해돋이)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순례 피정 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2026년 1월 9일~11일·1월 23일~25일·2월 6일~8일·2월 27일~3월 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돋이·해돋이) 12월 31일~1월 3일,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월 15일~18일·1월 30일~2월 1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5일~8일·3월 12일~14일·3월 18일~21일
 2026년 피정 접수 중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대성전(12월-상도동성당)
 11월 18일(화) 민동규 신부 12월 16일(화) 박성진 신부

예우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2월 5일 10시~15시30분
가톨릭서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1월 28일(금)~30일(주일)
요한묵시록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2월 10일(수)~13일(토)
송년 피정	12월 31일(수)~2026년 1월 1일(목) / 선착순 접수
단체 피정(자제·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 20일(토)~21일(주일)
3박4일	11월 27일(목)~30일(주일), 12월 11일(목)~14일(주일)
4박5일	12월 3일(수)~7일(주일)
8박9일	12월 26일~2026년 1월 3일, 1월 7일~15일
40일	12월 17일(수)~1월 25일(주일)

교육

고상·성모상·목주 만들기(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 / 문의: 02)727-2471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미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Z세대 디지털 중독 탈출

때, 곳: 11월 27일(목) 14시~17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5-2호) / 문의: 010-3262-6823 김영한
 주최: 천주교스마트침묵화운동본부(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원어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헬라이어)

때: 2026년 1월~12월, (수) 19시30분~21시30분
 방법: Zoom / 회비: 30만원씩 4회(총 12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교회사 안에서 영성

곳: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주최)
 계좌: iM뱅크 504-10-102896-6 (계)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 문의: 010-6791-0071 (문자)

1차	12월 17일(수) 15시~18일(목) 13시	회비: 12만원
2차	2026년 1월 7일(수)~8일(목)	(접수 후 입금)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월 8일~19일 / 전형일: 2026년 1월 9일
 곳: 최양업홀(전철 2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 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제27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3주)	2026년 1월 12일~2월 1일 / UCLA·UC버클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탐방
사이판 (4주)	2026년 1월 10일~2월 4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월 19일(수)~28일(금)
 전형일: 12월 13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집전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삶으로서의 철학'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성서주간 한남성서연구소 학술발표회

주제: 고통(성경·고대근동·외경·시리아교부·랍비문헌)
 때: 11월 21일(금) 10시~15시40분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31)846-3467
 공지사항(<https://cafe.naver.com/biblicum>) 참조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탈리아어 강좌

12월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 문의: 02)705-8718
 접수: 11월 21일(금)까지 / <http://scec.sogang.ac.kr>
 개강: 12월 2일(화)~6일(토) 강좌별로 상이함
 회비: 32만원부터 / 12주 과정, 주1회 2시간 수업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식 교육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 대입준비, 멘토링지원·진로탐색, 자격증 취득(사전·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영어만 영어회화·토론·글쓰기·작곡 등) / 댄스지도봉사자,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365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모집

전교가르멜 수녀회 재속회원 모집

대상: 기도와 교회적 친교의 삶을 원하는 분
 문의: 010-8271-1852, 010-4044-3383

그레고리오성가 남성 단원 모집

연습: 매주(수) 19시,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활동: 라틴어 미사와 그레고리오성가
 문의: 010-7127-3863 서울그레고리오성가단

티엠티산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대상: 만60세 이하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삶을 원하는 신자 / 문의: 010-9134-9848 회장
 첫모임: 12월 27일 10시, 폰벤투알 교육관

미사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새천년복음화학교 11월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1월 20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 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11월 17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 심리 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헬름 챔버 모차르트 레퀴엠 연주회(서초동성당)

때: 11월 28일(금) 20시 초대 / 문의: 02)775-8600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 및 부부상담, 종합심리검사

암환자·가족 무료 심터 이용 지원사업

대상: 암환자, 가족(보호자)
 이용기간: 최대 4박5일(월~금) / 곳: 강화도 마텔심터
 전액 무료 / 문의: 032)937-7530 마텔암재단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홈페이지(yonaesort.com) 참조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 문의: 041)934-7758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2025년 성탄 평화마켓(가톨릭 플라마켓)

청년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과 다양한 가톨릭 소품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켓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 문의: 02)338-7832
 때, 곳: 12월 6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1층 카페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유관단체 알림

룩스 노바(LUX NOVA) 사목세미나

주제: 한국 사회의 세대별 인식의 차이
 발제: 임동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대상: 청소년 사목 관심자 / 회비: 2만원(20명 마감)
 때: 11월 25일(화) 14시30분~17시
 곳: 햇살사목센터(주최, 종로구 혜화로2길 20)
 문의(접수): 02)744-0840 평일 10시~18시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신학대학) 직원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서울평단협 사무국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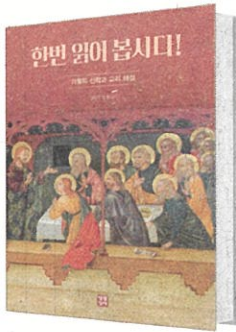
분야: 홍보 담당 간사 1명
 11월 30일(주일)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 서울평단협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각1부
 홈페이지(www.clas.or.kr)-알림-공지사항 참조

성수동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주간 방호원 1명(계약직) / 문의: 02)497-2543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관리·유지·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관리실 업무 /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774, 성동구 성북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제출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심수녀회	수시 / 개인면담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5696-2331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11월 23일(주일) 10시~15시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7542-7845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수시	수녀원(성북동)	010-4627-0295 손 카타리나 수녀
전교가르멜수녀회	11월 22일(토) 19시	본원(봉의동, 전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010-7523-0956(@carmelitas1977)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9695-1366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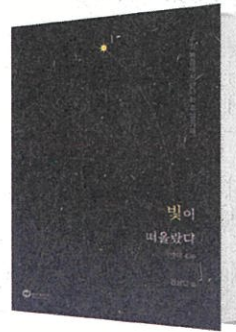


신간

가톨릭 신학과 교리 해설
한번 읽어 봅시다!

조한규 지음
생활성서사 | 272쪽 | 1만8천원
문의: 02)945-5987

가톨릭 신앙의 중심이자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신학과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본당 신자 재교육은 물론, 신학 입문까지도 섭렵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이 책은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사랑하도록, 나아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믿음의 동반자이자 길잡이가 되어 준다.



신간

빛이 떠올랐다

김상인 지음
위즈앤비즈 | 360쪽 | 1만7천원
문의: 031-986-7141

2026년 가해 전례력에 맞춘 주일 복음 묵상집으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는 여정을 안내한다. 저자가 지난 6년간 나눈 《신나는 복음 묵상》 중 가해 묵상을 정리해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짧지만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말씀을 삶 속에서 체화하도록 돕는다. 단순한 해설이 아닌, 인격적인 기도와 만남으로 이끄는 복음 묵상의 길을 제시한다.



신간

"태양 형제의 노래" 다시 듣기
지속 가능한 연악함

마르치아 체스키아 지음
도서출판 작음 | 110쪽 | 1만2천원
문의: 02)793-2070

성 프란치스코가 지은 '태양 형제의 노래'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쉽게 하느님 창조의 거룩함과 위대함,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 아름다운 프란치스코의 노래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다시 들을 것인지 성찰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연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I, II

때, 곳: 12월 17일(수)~21일(주일), 국립극장 해오름
티켓: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문의(예매): 02)2280-4114
[사전예매] QR코드 접속 후 '천주교 주보할인 30%' 선택(1인 4매까지 가능)

한국 무용의 오늘을 만든 네 명의 거장, 조흥동, 배정혜, 김현자, 국수호. 한 시대를 이끈 이들의 대표작이 국립무용단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되살아난다. 배정혜의 <Soul, 해바라기>, 국수호의 <티벳의 하늘>, 김현자의 <매화를 바라보다>, 조흥동의 <바람의 시간>까지 각기 다른 미학과 철학이 무대 위에서 만나 시대의 품격을 증명한다.



전시

알폰스 무하: 빛과 꿈 특별전

때, 곳: 11월 8일~2026년 3월 4일 (월화수목)
10시30분~20시(입장마감 오후 7시), (금토주일)
10시30분~20시30분(입장마감 오후 7시30분)
입장권: 성인 2만2천원, 어린이·청소년 1만5천원
문의: 02)3277-0610(credeactplan@gmail.com)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알폰스 무하의 예술적 업적,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로서의 위상, 그리고 비전 있는 예술가로서의 철학적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체코 정부의 반출 허가를 받은 국보 11점을 포함한 유화 작품 18점, 상징적인 석판화·드로잉·조각·보석·소품 등 총 143점의 걸작을 통해 무하의 예술적 여정과 인간애적 비전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오페라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때, 곳: 12월 13일(토), 1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입장권: SUITE석 14만원,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오페라를 어려워 하는 분들을 위한 다채로운 명곡들과 쉬운 해설로 함께하는 공연이다.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갈라>에서는 2022년 신동엽, 2023년 정준호, 신현준, 2024년 전현무에 이어, 올해는 오은영 박사가 깜짝 해설자로 출연하여, 작품 속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카운셀링 한다.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마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명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미사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5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오후 6시 (청년)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미사시간 조정

12월(대림 제1주간)부터 미사시간이 조정됩니다.

- 화요일 : 오전 6시미사 신설
- 수요일 : 오후 7시미사 신설
- 토요일 : 오전 6시미사를 오전 10시미사로 변경

● 11월 23일(주일) 10시30분 미사 없습니다.

- 자부회 간식행사로 11월 22일(토) 오후 3시미사를 초등부·중고등부반대 통합미사로 봉헌하고, 11월 23일(주일) 10시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부주임 신부님 피정 및 보좌 신부님 연수

- 백종원 마르코 부주임 신부님 피정 : 11월 14일(금) ~ 11월 21일(금)
- 최원영 스테파노 보좌 신부님 연수 : 11월 18일(화) ~ 11월 21일(금)
- ※ 은총의 시간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 추가모집 : 11월 19일(수) 까지
- 대상 : 예비신자, 외딴교우, 첫영성체 준비자
- 교리시간 : 주일반 :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반 : 오후 7시~8시 / 304호
- 세례식 : 2026년 4월 26일(주일)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11월 18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성소후원회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8일(화) / 오전 7시 30분 출발(성당마당)
- 장소 : 양주순교자성지

● 병자영성체

- 일시 :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출발
-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울드레아

- 일시 : 11월 25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성물방 봉사자 모집

- 봉사시간 :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2026년 각 단체 예산신청서 제출

- 기간 : 11월 30일(주일)까지
- 제출처 : 사무실
- 신청서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양식명(엑셀파일) : 2026년 단체예산신청서 양식

● 「봉헌컵초」 판매방법 변경

- 판매 방법 : 대면판매에서 자율판매로 변경
- 판매 장소 : 사무실 앞 (교육관 1층 로비)
- 시기 : 11월 16일(오늘)부터

● 구유 제작합니다.

- 일정 : 11월 9일(주일) ~ 11월 29일(토)
- 구유축복식 : 11월 30일(주일) 교중미사 후
- ※ ME 가족과 남성분과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 제출

- 2025년부터 납입하신 교무금 등은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기부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에따라 2022년 12월 이전에 간소화 동의를 하신 분들은 금년내에 사무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하실 경우 발급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1. 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5	763 (37.9%)	718 (35.6%)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연령회 감사헌금

- 故 신유경 로사 상가 삼십만원
- 故 이예나 미카엘라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 (11월 3일 ~ 11월 9일)

- 조명자 일십만원
- 김진웅 오만원
- 진성은 삼만원
- 홍선호 일십만원
- 임은진 일십만원
- 곽선모 일만원
- 문지원 일십만원
- 권정자 일십만원
- 오영순 일십오만원
- 익명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 교 무 금 9,305,000원
- 주일헌금 5,676,000원
- 평신도주일 2차헌금 1,677,000원

입당	48	봉헌	41,446,210	성체	46,31,453	파견	436
----	----	----	------------	----	-----------	----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 - 러 주님이오신다